

사회단체 참여와 나눔 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송진영
(성결대학교)

본 연구는 다양한 사회단체 참여와 나눔 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신뢰가 이들 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0년 서울시 복지패널 부가조사'의 가구원용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SPSS 19.0을 이용하여 이들 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사회의 비공식적·공식적 사회참여는 상당히 낮은 활동수준을 나타냈다. 둘째, 건강과 소득은 생활만족도에 가장 높은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개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변인으로서 신뢰가 사회단체 참여와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신뢰는 나눔 활동과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비공식적·공식적 사회참여가 낮은 상황에서, 다양한 단체에 대한 신뢰가 사회단체 참여와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여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변인임을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사회에 살고 있는 개인들의 사회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비공식적·공식적 단체에 대한 신뢰 향상을 통해 개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실천적·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용어: 생활만족도, 사회단체 참여, 나눔 활동, 신뢰, 매개효과

■ 투고일: 2013.1.28 ■ 수정일: 2013.3.8 ■ 게재확정일: 2013.3.26

I. 서론

현대사회는 빈곤, 사회적 불평등, 양극화 문제 등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종래의 사회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새로운 관점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7년 외환위기가 가져온 대량실업, 빈곤층 확대, 양극화 등의 사회경제적 충격 속에서 개인과 가족의 삶 전반에 치명적인 상처를 경험한 바 있지만, 그러한 경험을 통해 객관화되고 체계화된 국가의 제도적 기본 틀이 완성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확인된 자본주의의 폐해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강력한 수단은 그리 쉽게 찾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 중심의 사회복지적 대응방안은 여전히 제도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홍성모, 2010).

오늘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의 창출과 함께 각 사회구성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과 신뢰, 호혜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OECD, 2000).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 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역할과 민간자원의 조성에 관한 논의가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이렇듯 정부와 시장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에 대한 구체적 대응으로서, 신뢰와 사회단체 참여와 같은 사회자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회자본은 사회 구성원들 간에 협력과 참여를 통해 전체 사회가 지향하는 목표달성을 위한 생산적 상호작용을 창출할 수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의미가 있다(박세경 외, 2009).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가 노출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는 측면이 있으며, 사람들 간에 도덕적인 의무감과 일반화된 호혜성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실천의 가치로도 연결된다. 이와 같이 사회자본이 현대사회에서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사회단체 참여에 대한 인식은 그리 높지 않으며, 실제로도 사회단체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체계와 조직이 아직 정비되지 못한 실정이다(이근홍, 2001). 따라서 우리사회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역할을 제공하여 그들의 삶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생활만족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즉, 생활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궁극적인 목표이며, 모든 인간은 질 높은 삶을 증진하는 것을 최대의 관심사로 인식하고 있다.

생활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에 살펴보면, 생활만족도는 사회단체 참여, 나눔 활동, 신뢰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미령(2008), 김영범과 이승훈(2008), Murphy(2003) 등에 의하면 사회단체 참여는 다른 사람과의 사교기회를 제공하고, 어려운 일이나 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거나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원망(supporting networks)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했다. 이상연과 이재형(2007), 강현정(2009), 양순미(2010), Lemon 외(1972) 등의 연구에서도 일반인, 노인, 결혼 이주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단체 참여가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요인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노인의 사회단체 참여를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참여로 구분하여 연구한 임우석(2009)은 상이한 결과를 보고했다.

우리사회의 자원봉사활동과 기부활동 참여율은 유럽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통계청, 2011). 강철희(2007)는 나눔 활동을 자선적 시민참여의 한 형태로 정의하고, 나눔 활동은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의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면서 사회발전 및 건강한 사회의 유지에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고했다. 나눔 활동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는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조운주(2007), 박용순 외(2012), Andreoni(1990) 등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김미혜와 정진경(2003)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과 생활만족도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회자본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많은 사회자본 요소들 중에서도 특히 사회단체 참여가 개인들의 공동체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사회에 대한 신뢰(trust)를 생산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단체에 대한 개인들의 참여수준과 사회단체의 유형 등이 사람들의 신뢰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로 사회단체 참여가 신뢰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 보고되고 있다(최은숙, 2012; 유홍준·홍훈식, 2009; 이희창 외, 2008; Schervish & Havens, 1997).

강철희(2007)에 의하면, 나눔 활동은 신뢰와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쌍방향적인 관계라고 보고했다. 이선미(2005)와 최종덕(2007)의 연구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이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사회단체 참여와 나눔 활동이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단체의 참여와 나눔 활동이 개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사회적 지지, 사회단체 참여, 나눔 활동, 신뢰 등으로 구분하여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생활만족도의 영향관계를 단순한 속성 및 관계 위주의 분석을 함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단순한 시각을 넘어서는 또 다른 관점으로 생활만족도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단체 참여와 나눔 활동 관계에서 새로운 매개변인을 찾아내어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관계를 찾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단체 참여와 나눔 활동은 신뢰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사회단체 참여와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네트워크가 활발한 사람들은 참여적인 민주시민으로서 타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신뢰는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사회단체 참여와 나눔 활동, 신뢰, 그리고 생활만족도 간에 다양한 효과를 밝히는 일은 이들 간의 관계를 인식하고, 이들과 관련된 사회단체와의 관계적 측면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복지정책의 차원에서도 많은 공헌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사회내의 사회단체 참여, 나눔 활동, 신뢰, 그리고 개인의 생활만족도의 수준과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단체 참여 및 나눔 활동과 생활만족도 간 신뢰의 매개효과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사회단체 참여와 나눔 활동이 낮은 집단에 대한 생활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다양한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유인책 마련을 통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실천적 개입 방안에 활용하고, 나아가서는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양한 단체에 대한 신뢰를 향상하고 사회단체 참여와 나눔 활동을 함께 실천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실천적·정책적인 관점에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다양한 사회단체 참여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둘째, 자원봉사나 기부와 같은 나눔 활동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셋째, 신뢰는 사회단체 참여와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가?
- 넷째, 신뢰는 나눔 활동과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생활만족도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행복 추구는 인간의 기본적인이고 궁극적인 목표이며, 모든 인간은 질 높은 삶을 증진하는 것을 최대의 관심사로 인식하고 있다.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라는 용어는 Campbell 외(1976)의 연구에서 좋은 생활이란 경제적으로 안정된 것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관점을 소개하면서부터 사용되었고, 그 이후 인간의 삶에 있어 질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지면서 생활만족도는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생활만족도에 대한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행복, 적응, 사기 등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어왔는데 이러한 혼용에 대해 Campbell 외(1976)는 생활만족도를 자신이 바라던 것과 실제 성취한 것을 비교하여 자신의 전반적인 존재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반면에 사기는 용기-훈련-확신-열의에 대한 의지와 고난을 참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정신적인 상태로, 행복은 현재의 유쾌한 감정을 느끼는 일시적인 기분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이러한 생활만족도는 개인의 삶에 대한 의식적이고 주관적이며 인지적인 판단이므로 주관적 삶의 만족도 또는 심리적 안녕감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Ahrens & Ryff(2006)은 개인의 긍정적인 경험을 심리학적 이론들을 기초로 하여 생활만족도로 정의했다. 조완규(1993)는 생활만족도를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에 대해 성취감을 느끼며, 과거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매일의 생활에 대한 낙천적인 태도 또는 감정을 느끼고 유지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또한 송진영(2009)은 생활만족도를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심리적 기능으로서의 안녕감이라고 정의하고, 안녕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고 주변 환경을 적절히 통제하며 삶의 목적이 있고 개인이 성장하려는 동기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은 견해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를 전 생애를 통한 연속적이고 과정적인 의미로서 기대하던 일정한 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이고 총체적인 감정상태로 정의한다.

2. 사회단체 참여와 나눔 활동

사회단체 참여(social group participation)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몫을 담당하며, 사회적 자아로서의 각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의 총체를 의미하며, 인간들은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타인들과의 관계와 생산적 활동을 지속해 간다(김상돈, 2006; Palmore, 1981; Rowe & Kahn, 1998). 따라서 사회단체 참여는 취업활동, 지역사회조직 및 단체 활동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단체 참여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참여자의 관심영역을 확장시키고 다양한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며, 사회적 관계를 쌓게 되어 시민의식이나 사회적 신뢰를 형성한다(Putnam, 1993). 인간은 다양한 사회단체 참여를 통해 개인의 삶을 재미있고 보람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접촉이 가능하여 생산적이며 통합적인 생활 유지를 할 수 있게 된다.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단체 참여는 일상생활에서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 같은 비공식집단과의 접촉 뿐만 아니라 인생의 전 생활주기를 통해 직업활동, 여가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보다 공식적인 집단을 통한 활동 등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와 관련을 맺는 활동을 통칭한다(조성남, 2004). 기능적인 측면에서 사회단체 참여는 지불되는 노동의 대가를 통해 생계유지의 수단이 되거나, 수행하는 업무를 통해 전체사회의 운영 방향과 내용에 관여함으로써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의 성원으로서 존재를 확인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의 사회관계를 통해 사회인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제주발 전연구원, 2006).

나눔 활동이 사회단체 참여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연구자마다 상이하게 보고되고 있다. Narayan & Cassidy(2001)는 사회단체 참여에 기부나 자원봉사를 포함시켰으나, Brooks(2005)와 Brown & Ferris(2007)에 의하면 사회단체 참여는 개인의 기부행위, 자원봉사행위와 같은 자선적 행동과는 구분된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주장에 따라 사회단체 참여와 나눔 활동을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나눔 활동은 자원봉사와 기부로 구분할 수 있다. 통계청(2011)의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3세 이상의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기부를 경험해 본 사람은 36.4% 정도이며, 자원봉사를 경험해 본 사람은 19.8%정도인데 그 중에서 13~19세의 77.7%를 제외하면 10% 내외의 자원봉사 경험을 보이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7.2% 정도이다. 이는 일본 25%, 영국 48%, 미국 55.5%

등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자원봉사와 기부 참여율 즉,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강철희(2007)에 의하면,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자선적 시민참여(Civic Engagement)의 한 형태인 나눔 행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며,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의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면서 사회발전 및 건강한 사회의 유지에 기여하고, 사회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을 촉진시키면서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Duncan(1999)이 주장한 공공재로서의 나눔의 행동은 공공의 선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순수한 이타성에 기반된다고 한다. 반면 Andreoni(1990)는 순수하지 않은 이타주의자로서의 나눔의 행동에 의해 얻어지는 동기 요인에 의해서 나눔을 행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Eisenberg(1986)는 나눔 활동을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원조 행위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정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단체 참여를 타인과의 상호교류와 관련되어 있는 친목회, 동호회, 지역사회 모임, 정당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일련의 행태로 정의한다. 또한 자원봉사경험은 지난 몇 해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지를 측정하며, 기부경험은 지난 몇 해 동안 기부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지로 정의한다.

3. 사회단체 참여 및 나눔 활동과 신뢰

신뢰는 사회단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개인과 단체생활, 공공활동에 있어서의 행태, 태도, 성향에 기초가 되며, 경제발전, 효과적인 정치제도, 낮은 범죄율 등과 같은 집단 복지문제 해결 수준과 개인 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신뢰와 관련해서는 이를 어떠한 개념적 측면에서 정의했는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다. Zucker(1986)에 의하면 신뢰는 협력의 분위기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모든 일상의 사회적 상호관계의 기초가 된다고 하였으며, Lewis & Weigert(1985)는 사회적 관점에서의 신뢰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 결속을 가능하게 하는 속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Sargeant & Lee(2004)는 신뢰를 다양한 사회단체에 대한 지지의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Bekkers(2003)와 Brooks(2005)는 전반적인 사회적 신뢰의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다. 다양한 단체의 사회단체 참여와 신뢰의 인과구조에 대한 한·미 간 비교연구를 수행한 김상돈(2006)에 의하면, 사회단체 참여는 한국과 미국 모두 신뢰에 정적(+)인 영향이 있으며, 한국이 미국보다 좀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했다. 또한 Coleman(1988)과 Paxton(1999)에 의하면 사회단체 참여는 신뢰형성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했다. 반면 신뢰를 대인적, 사회적, 그리고 제도적 신뢰로 구분하여 사회단체 참여의 영향 관계를 연구한 박병진(2007)에 의하면, 사회단체 참여는 제도적 신뢰에는 연관이 있으나, 대인적이나 사회적 신뢰에는 연관이 없다고 보고했다.

강철희(2007)는 사회복지, 모금단체, 교육기관, 종교단체 등에 대한 신뢰와 자원봉사 활동 및 기부노력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자원봉사 및 기부와 신뢰는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쌍방향적인 관계라고 보고했다. 이선미(2005)의 연구에서는 임직원 자원봉사가 개인 간의 면대면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체험적 참여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신뢰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종덕(2007)의 연구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이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를 Sargeant & Lee(2004)가 주장한 바와 같이 다양한 사회단체 각각에 대한 긍정적 이해로 개념화하는 방식을 따라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시민단체, 문화예술단체, 자선단체, 교육기관, 의료기관, 종교기관, 노동조합, 정당, 이익단체 및 경제인단체, 대기업, 중소기업,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법기관, 언론기관 등의 다양한 단체에 대한 신뢰로 정의한다.

4. 생활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생활만족도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성별, 연령, 건강수준,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단체 참여, 신뢰, 자원봉사활동, 기부활동 등의 다양한 요인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회단체 참여는 다양한 영역에서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김미령(2008), 김영범과 이승훈(2008), 그리고 Murphy(2003) 등에 의하면 사회단체 참여는 다른 사람과의 사교기회를 제공하고, 어려운 일이나 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거나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원망(supporting networks)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생활만족도 등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했다. Lemon 외(1972)는 사회

단체 참여가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요인이라고 보고했으며, 이상연과 이재형(2007)은 노인의 사회단체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반면, 노인의 사회단체 참여를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참여로 구분하여 연구한 임우석(2009)의 연구에서는 사회단체 참여는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없게 나타났다. 양순미(2010)는 농촌 이주여성의 사회단체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으며,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강현정(2009)은 사회단체 참여 중 단체활동에 대한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최은숙(2012)과 유홍준과 홍훈식(2009)에 의하면, 개인들이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수준에 따라 시민적 영형, 공공에 이익이 되는 행위의 수준이 달라지며,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고 보고했다.

나눔 활동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는 다수가 보고되고 있다. 경제학에서는 행복감과 관련해서 'Warm Glow'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Andreoni, 1990). 즉, 나눔의 결과 가질 수 있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느낌을 위해 나눔 행동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김미혜와 정진경(2003)에서는 자원봉사활동과 생활만족도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박용순 외(2012)와 조운주(2007)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신뢰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측면과 행복감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는 사람이 자기의 운명을 통제하는 기회와 미래와 기회에 대해 낙관의 표현이라고 한다. 즉, Uslander(2002)는 미래를 낙관하고 자신이 사는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활에 더 행복한 전망을 가진다고 보고했다. 또한 Helliwell(2007)의 연구에서는 동료 를 신뢰하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신뢰하며 정부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행복감과 생활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와 생활만족감 간에는 긍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신뢰를 사적 신뢰와 공적 신뢰로 구분하여 연구한 임우석(2009)의 연구에서는 사적 신뢰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나, 공적 신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했다.

소득 수준과 건강상태는 거의 모든 선행 연구에서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이다. 박용순 외(2012)는 소득수준과 건강상태가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했으며, 종교와 교육수준은 생활만족도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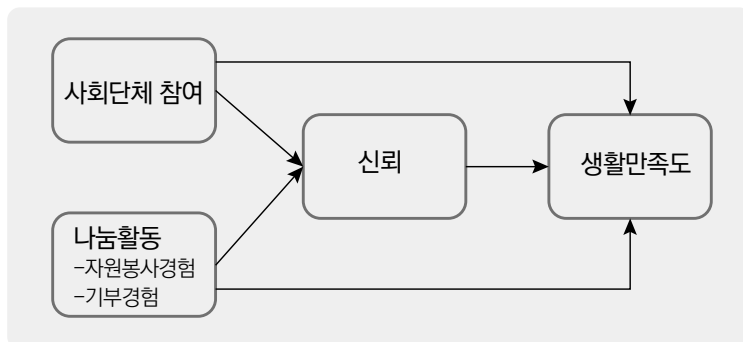
보고했다. 또한 홍은진(2006)과 Freeman(1997)은 성별이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사회단체 참여와 나눔 활동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신뢰는 이들 간을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연구가설 1. 사회단체 참여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자원봉사경험이 있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3. 기부경험이 있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4. 신뢰는 사회단체 참여와 생활만족도 간을 정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5. 신뢰는 자원봉사경험과 생활만족도 간을 정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6. 신뢰는 기부경험과 생활만족도 간을 정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2010년 서울시복지재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2010년 서울시 복지패널 부가조사'의 가구원용 데이터이다. 이 조사는 대면면접조사(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방식이 활용되었으며, 유효 표본은 6,304명의 가구원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6,304명의 가구원 중 연령이 18세 이상인 6,01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측정도구의 구성

가. 종속변수 :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2010년 서울시 복지패널 부가조사에서 사용된 13가지 항목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가족 간의 관계만족도, 현재의 수입만족도, 나 자신의 건강만족도, 내 집의 주거환경만족도, 미래에 대한 대비만족도, 현재하고 있는 일/사업만족도, 그동안 해온 일의 성과만족도, 나의 문화생활만족도, 나의 현재의 생활수준만족도, 나의 사회적 활동만족도, 현재의 재산만족도, 나의 친구관계만족도,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만족도 등이다. 각 문항은 5점 척도(① 매우 만족~ ⑤ 매우 불만족)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분석의 용이성과 일관성을 위해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삶의 만족도의 cronbach's α 는 .929 이다.

나. 독립변수 : 사회단체 참여

독립변수인 사회단체 참여는 동창회 모임, 동호회 모임, 향우회 모임, 종친회 모임, 종교단체 모임, 시민단체 모임, 후원회 모임, 학술모임, 아파트 모임, 정당모임, 직무관련모임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①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한다~⑤ 전혀 활동하지 않는다)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분석의 용이성과 일관성을 위해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단체 참여가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단체 참여의 cronbach's α 는 .895 이다.

다. 독립변수 : 나눔 활동

독립변수인 나눔 활동은 자원봉사경험과 기부경험으로 구분하였다. 자원봉사경험은 지난 한 해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지를 이분형 응답(있다=1, 없다=2)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기부경험은 지난 한 해 동안 기부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지를 이분형 응답(있다=1, 없다=2)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 둘 변수는 회귀분석을 위해 더미변수 형태로 재코딩(경험여부 있다=1, 없다=0하여 측정하였다).

라. 매개변수 : 신뢰

2010년 서울시 복지패널 부가조사에서는 신뢰를 다양한 사회단체 각각에 대한 긍정적 이해로 개념화하는 방식(Sargeant & Lee, 2004)을 따라 이러한 방향에서 총 16개 사회단체에 대한 문항(①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② 시민단체, ③ 문화예술단체, ④ 자선단체, ⑤ 교육기관, ⑥ 의료기관, ⑦ 종교기관, ⑧ 노동조합, ⑨ 정당, ⑩ 이익단체 및 경제인단체, ⑪ 대기업, ⑫ 중소기업, ⑬ 중앙정부, ⑭ 지방정부, ⑮ 사법기관, ⑯ 언론기관)으로 나누어 5점 리커트 척도(① 매우 신뢰한다 ~ 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로 구성하였으나, 분석의 용이성과 일관성을 위해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신뢰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의 cronbach's α 는 .925 이다.

마.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통제변수는 선행연구에서 생활만족도에 영향정도가 보고된 성별, 연령, 학력, 취업상태, 혼인상태, 본인의 건강상태, 종교, 개인 중위소득,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 경험, 지난 1년 동안 현금이나 물품 등의 기부를 한 경험 등을 설정하였다. 성별은 여성과 남성의 경우를 여성은 0, 남성은 1로 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연령은 2010년 서울시 복지패널 부가조사에서 정의한 연령대인 18~29세, 30대, 40대, 50대, 60~64세, 65세 이상을 사용하였다. 혼인상태는 기타를 0, 유배우자를 1로 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학력은 초등졸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석사 이상 등 패널에서 정의한 것을 수정 없이 사용하였다. 종교는 없는 경우를 0, 있는

경우를 1로 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본인의 건강상태는 5=아주 좋지 않다, 4=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2=건강한 편이다, 1=매우 건강하다 등을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개인 중위소득은 소득 기준에 따라 소득없음, 50% 이하, 51~150% 이하, 151% 이상을 수정 없이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9.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사항은 빈도,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분석하고, 본 연구의 척도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신뢰와 생활만족도 간의 영향력 및 나눔 활동경험의 매개효과를 밝히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은 Baron & Kenny(1986)의 방식을 이용하였다. 즉, 첫째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둘째로 독립변인이 설정한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셋째로 독립변인이 있는 상태에서 설정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이 있으면 매개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조정된 R²값(설명력)이 1단계 분석보다 2단계 분석에서 증가하고 F값이 유의미하며, 독립변수의 표준화회귀계수(β)값이 1단계보다 2단계에서의 값이 작아지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매개효과 입증을 위해 MacKinnon 외.(2002)의 연구에서 제시한 Sobel 검정값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Sobel 검정에 의한 z값은 $z > 1.96$ 또는 $z < -1.96$ 을 만족하는 경우에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IV.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측정변수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여성	3,302	54.9
	남성	2,711	45.1
연령	18~29세	886	14.7
	30대	1,176	19.6
	40대	1,178	19.6
	50대	911	15.2
	60~64세	433	7.2
	65세 이상	1,429	23.8
학력	초등졸 이하	962	16.0
	중학교	557	9.3
	고등학교	1,761	29.3
	전문대학	468	7.8
	4년제 대학	2,003	33.3
	대학원 석사 이상	262	4.4
취업상태	비취업	3,392	56.4
	취업	2,621	43.6
혼인상태	기타	2,056	34.2
	유배우자	3,957	65.8
본인 건강상태	아주 좋지 않다	247	4.1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1,145	19.0
	보통이다	1,219	20.3
	건강한 편이다	2,668	44.6
	매우 건강하다	718	11.9
종교	없음	2,873	47.8
	있음	3,140	52.2
증위소득	소득 없음	3,453	57.5
	50% 이하	653	10.9
	51~150% 이하	1,326	22.1
	151% 이상	577	9.6

여성은 3,302명(54.9%)으로 남자 2,711명(45.1%)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65세 이상이 1,429명(23.8%)로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40대 19.6%, 30대 19.6%, 50대 15.2%, 18~29세 14.7%, 60~64세 7.2%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4년제 대학이 2,003(33.3%), 고졸이상이 29.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학력을 보였으나, 초등학교 졸업 이하도 962명(16.0)의 분포를 보였다. 취업상태는 비취업자 3,392명(56.4%)로 취업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유배우자가 3,957명(65.8)로 미혼, 이별, 사별 등 기타 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본인의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인 경우가 2,668명(44.6%) 비교적 좋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종교는 있는 경우가 52.2%로서 없는 경우보다 조금 높은 분포를 나타내다. 개인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이 없는 경우가 3,453명(57.5%)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51~150% 이하 1,326명(22.1%), 빈곤층으로 정의되는 중위소득 50% 이하가 653명(10.9%), 151% 이상이 5774명(9.6%)으로 나타났다.

2. 주요변수들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된 생활만족도는 13개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평균 3.10(표준편차 .612)으로 보통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로 구성된 생활만족도의 13개 하위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가족 간의 관계만족도로서 평균 3.76이었고, 나의 친구관계만족도는 3.36, 주거환경만족도는 3.29, 자신의 건강만족도는 3.28, 그동안 해온 일의 성과만족도는 3.10, 현재 일이나 사업만족도는 3.05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본 조사대상자들은 가족 및 친구 간의 관계, 주거환경, 건강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현재의 재산만족도는 2.78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수입만족도는 2.85, 문화생활만족도는 2.88, 나의 사회적 활동만족도는 2.95, 나의 현재의 생활수준만족도는 2.99 순으로 낮게 나타남에 따라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재산, 수입, 문화생활, 사회적 활동 등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 생활만족도 점수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생활만족도(전체)	6,013	1	5	3.10	.602
가족 간의 관계만족도	5,913	1	5	3.76	.723
현재의 수입만족도	5,179	1	5	2.85	.919
나 자신의 건강만족도	6,013	1	5	3.28	.937
내 집의 주거환경만족도	6,013	1	5	3.29	.792
미래에 대한 대비만족도	6,013	1	5	3.01	.828
현재하고 있는 일/사업만족도	6,008	1	5	3.05	.825
그동안 해온 일의 성과만족도	6,013	1	5	3.10	.794
나의 문화생활만족도	6,013	1	5	2.88	.818
나의 현재의 생활수준만족도	6,013	1	5	2.99	.766
나의 사회적 활동만족도	6,013	1	5	2.95	.790
현재의 재산만족도	6,013	1	5	2.78	.802
나의 친구관계만족도	6,013	1	5	3.36	.756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만족도	6,013	1	5	3.00	.743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사회단체 참여는 11개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평균 1.74(표준편차 .651)로 낮은 활동 수준을 나타냈다. 5점 척도로 구성된 사회단체 참여의 11개 하위항목 중 동창회 모임 2.28(1.167)과 동호회 모임 2.26(1.169)이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보통수준 기준 3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우리사회의 사회단체 참여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정당모임 1.40(.669), 후원자 모임 1.48(.720), 학술단체 모임 1.49(.772), 시민단체 모임 1.53(.766) 등의 사회단체 참여는 매우 부진하게 나타났다.

표 3. 사회단체 참여 점수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사회단체 참여(전체)	6,013	1	5	1.74	.651
동창회 등 같은 학교 모임	6,013	1	5	2.28	1.167
비슷한 취미(동호회) 모임	6,013	1	5	2.26	1.169
향후회 등 지역출신 모임	6,013	1	5	1.78	.933
종친회 등 혈연 모임	6,013	1	5	1.74	.900
종교단체 모임	6,013	1	5	1.97	1.146
시민단체 모임	6,008	1	5	1.53	.766
자선단체 등 후원회 모임	6,013	1	5	1.48	.720
교육 또는 학술 모임	6,013	1	5	1.49	.772
아파트 거주민 모임	6,013	1	5	1.52	.816
정당 등 정치관련 모임	6,013	1	5	1.40	.669
직무와 연관된 모임	6,013	1	5	1.70	1.009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나눔 활동의 빈도분석결과, 자원봉사경험은 자원봉사경험은 없는 경우가 5,490명(91.3%)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부경험도 없는 경우가 5,075명(84.4%)로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표 4. 나눔실행 점수

변인	구분	빈도	퍼센트(%)
자원봉사경험	없음	5,490	91.3
	있음	523	8.7
기부경험	없음	5,075	84.4
	있음	938	15.6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신뢰는 7개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평균 3.02(표준편차 .538)로 보통정도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5점 척도로 구성된 신뢰의 7개 하위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자선단체에 대한 신뢰로

서 평균 3.47이었고,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는 3.41,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는 3.32,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신뢰는 3.29, 종교기관에 대한 신뢰는 3.20,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신뢰는 .306,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는 3.03 순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정당에 대한 신뢰의 평균은 2.50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익단체 및 경제인 단체에 대한 신뢰는 2.74,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는 2.74, 지방정부, 사법기관, 언론기관은 2.89, 대기업과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는 2.90 순으로 신뢰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들은 자선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종교기관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신뢰를 보이는 반면에 정당, 이익단체, 노동조합, 사법기관, 기업, 정부, 언론기관 등에는 낮은 신뢰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 신뢰 점수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신뢰(전체)	6,013	1	5	3.00	.527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신뢰	6,013	1	5	3.29	.723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	6,013	1	5	3.03	.761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신뢰	6,013	1	5	3.06	.660
자선단체에 대한 신뢰	6,013	1	5	3.47	.731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	6,013	1	5	3.32	.739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	6,013	1	5	3.41	.747
종교기관에 대한 신뢰	6,013	1	5	3.20	.824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	6,013	1	5	2.74	.787
정당에 대한 신뢰	6,013	1	5	2.50	.811
이익단체 및 경제인단체	6,013	1	5	2.59	.799
대기업에 대한 신뢰	6,013	1	5	2.90	.794
중소기업에 대한 신뢰	6,013	1	5	2.98	.748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6,013	1	5	2.90	.787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6,013	1	5	2.89	.777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	6,013	1	5	2.89	.795
언론기관에 대한 신뢰	6,013	1	5	2.89	.802

특히 정당은 사회단체 참여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신뢰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보임에 따라 우리사회는 정당에 참여하지도 않으며 신뢰하지도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생활만족도에 대한 사회단체 참여와 나눔 활동의 영향 및 신뢰의 매개효과

사회단체 참여와 나눔 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 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방식에 따라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은 모든 변수들에서 VIF가 1.5미만이 나옴에 따라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6. 사회단체 참여와 나눔활동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변수명	β	t
(상수)		56.494 ***
성별	-.058	-4.078 ***
연령	.126	6.652 ***
학력	-.061	-3.503 ***
취업상태	-.115	-2.832 **
혼인상태	-.045	-3.316 **
본인의 건강상태	.061	3.721 ***
종교	-.055	-4.200 ***
개인 중위소득	.107	2.536 *
자원봉사경험	-.014	-1.061
기부경험	-.018	-1.287
사회단체 참여	.147	10.799 ***
Adj R ²	.107	
F	24.526***	

* p<.05, ** p<.01 ***p< .001

<표 6>은 사회단체 참여와 나눔 활동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로서, 조정된 R²값(설명력)이 .107이고 F값이 24.526(p<.00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사회단체 참여에 대한 β값이 .147(p<.001)로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사회단체 참여가 높을수록 신뢰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자원봉사경험과 기부 경험 등 나눔 활동은 신뢰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은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이다.

1단계 분석에서는 조정된 R²값(설명력)이 .269이고 F값이 201.140(p<.00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사회단체 참여에 대한 β값이 .163(p<.001)로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사회단체 참여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종교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생활만족도에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본인의 건강상태가 .374(p<.001)로 가장 높은 영향관계를 보였으며, 개인 중위소득이 높을수록(.277, p<.001), 학력이 높을수록(.176, p<.001), 연령이 높을수록(.152, p<.001), 기부경험이 있는 경우(.068, p<.001),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경우(.059, p<.001), 유배우자일수록(.050, p<.001)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상태(-.269, p<.001)와 성별(-.066, p<.001)은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미취업상태가 취업상태보다,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단계 분석에서는 사회단체 참여와 나눔 활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투입 결과, 설명력이 .272이고 F값이 188.036(p<.00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2단계 분석에서 사회단체 참여는 1단계 분석에서 β값이 .163(p<.001)에 비해 2단계 분석에서는 β값이 .155(p<.001)로 1단계 분석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신뢰는 β값이 .055(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신뢰는 사회단체 참여와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함을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연구가설 4는 지지되었다(Baron & Kenny, 1986).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또 다른 방법인 MacKinnon et al.(2002)의 연구에서 제시한 Sobel 검정에 의한 z값은 본 연구에서 4.639(p<.001)¹⁾로 나타남에 따라, z > 1.96 또는 z < -1.96을 만족하므로 매개효과가 있음이 추가적으로 입증되었다.

1) $z = \frac{ab}{\sqrt{b^2 * SE_a^2 + a^2 * SE_b^2}}$, a는 사회참여→신뢰 간의 비표준화경로계수 = .094,
b는 신뢰→생활만족도 간의 경로계수 = .080, SE는 표준오차(a = .010, b = .015)

표 7. 생활만족도에 대한 사회단체 참여의 영향도 및 신뢰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변수명	1단계 분석		2단계 분석	
	β	t	β	t
(상수)		34.391 ***		24.0234 ***
성별	-.066	-5.333 ***	-.063	-5.077 ***
연령	.152	9.193 ***	.145	8.755 ***
학력	.176	11.590 ***	.179	11.814 ***
취업상태	-.269	-7.615 ***	-.263	-7.445 ***
혼인상태	.050	4.219 ***	.053	4.434 ***
본인의 건강상태	.374	25.911 ***	.370	25.695 ***
종교	-.011	-1.004	-.008	-.738
개인 중위소득	.277	7.504 ***	.271	7.353 ***
자원봉사경험	.059	4.965 ***	.060	5.042 ***
기부경험	.068	5.647 ***	.069	5.739 ***
사회단체 참여	.163	13.753 ***	.155	12.967 ***
신뢰			.055	4.926 ***
Adj R ²	.269		.272	
F	201.140***		188.036***	

* p<.05, ** p<.01 ***p< .001

반면, 자원봉사경험과 기부경험의 분석결과, 2단계 분석에서 자원봉사경험은 1단계 분석에서 β 값이 .059(p<.001)에 비해 2단계 분석에서는 β 값이 .060(p<.001)로 1단계 분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기부경험은 1단계 분석에서 β 값이 .068(p<.001)에 비해 2단계 분석에서는 β 값이 .069(p<.001)로 1단계 분석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매개효과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생활만족도와 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가설 2와 연구가설 3은 지지되었지만,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가설인 5와 6은 기각되었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사회단체 참여는 매개변수인 신뢰를 경유하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신뢰는 사회단체 참여와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신뢰는 나눔 활동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다양한 단체에 대한 사회단체 참여와 나눔 활동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신뢰가 이들 간을 매개하는지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단체 참여, 나눔 활동, 신뢰, 그리고 생활만족도 간 기술 통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단체 참여에 대한 신뢰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단체 참여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신뢰는 사회단체 참여와 생활만족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단체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있다는 본 결과는 김미령(2008), 김영범과 이승훈(2008), Lemon 외(1972), Murphy(2003)와 동일한 결과였으나, 임우석(2009)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였다.

둘째, 나눔 활동에 대한 신뢰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신뢰는 자원봉사경험과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는 기부경험과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뢰는 나눔 활동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있다는 본 결과는 조운주(2007), 박용순 외(2012), Andreoni(1990)와는 동일했으나, 김미혜와 정진경(2003)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셋째, 생활만족도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통제변수, 독립변수, 매개변수 등 다양한 변수를 투입한 결과, 통제변수 중에는 종교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생활만족도에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인의 건강상태가 가장 높은 영향관계를 보였으며, 개인 중위소득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기부경험이 있는 경우,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경우, 유배우자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상태와 성별은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미취업상태가 취업상태보다,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건강상태가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관계가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박용순 외(2012)와 동일한 결과였으며, 소득과 생활만족도 간에 영향이 있다는 결과는 박용순 외(2012)와 동일한 결과였다. 나눔 활동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박용순 외(2012), 조운주(2007), 그리고 Andreoni(1990)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였으나, 김미혜와 정진경(2003)과는 상이한 결과였다. 종교와 생활만족도 간에 영향이 없다는 결과는 박용순 외(2012)와 동일한 결과였다. 성별이 생활만족도

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홍은진(2006) 및 Freeman(1997)과 동일한 결과였다. 학력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박용순 외(2012)와는 상이한 결과였다.

넷째, 주요변수들의 일반적 특성 분석에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생활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문화생활, 수입, 사회적 활동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단체 참여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자선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종교기관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신뢰를 보이는 반면에 정당, 이익단체, 노동조합, 사법기관, 기업, 정부, 언론기관 등에는 낮은 신뢰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함의를 모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단체 참여가 신뢰를 매개변수로 하여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생활만족도가 개인의 내적 차원의 요인이나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요인인 사회단체 참여와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사회자본의 요소들을 분리하여 사회단체 참여와 이를 통해 형성되는 신뢰에 대한 매개효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리사회의 비공식적·공식적 사회단체 참여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공식적·공식적 단체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생활만족도의 향상을 위해 사회적 관계를 보다 더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 간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천과 정책을 고려할 필요성으로 보여주었다. 이에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사회단체 참여를 통하여 협력이 가능하게 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화의 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비공식적 그리고 공식적인 다양한 지역사회 행사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지역사회 행사에 개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참여하는 개인들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사회복지의 네트워크 구성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사회단체 간에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신뢰가 다양한 사회단체에 대한 참여를 통해 형성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유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나눔 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신뢰가 이들을 매개하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눔 활동 즉, 자원봉사활동경험과 기부경험이 있는 경우에 생활만족도가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의 나눔 활동 참여율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자원봉사활동이나 기부활동 등과 같은 건전한 나눔의 실천이 보다 확산될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이나 유인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타성이나 무보수성이라는 자원봉사와 기부의 본질성을 가지는 나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계혜택이나 사회적 인정보상 등과 같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자원봉사자의 소진에 대해 연구한 Wilson(2000)에 의하면, 소진(burn-out)이 나타나는 이유로서 낮은 활동만족과 참여동기, 조직특성, 봉사활동의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에게 맞지 않아 흥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면 Wilson & Musick(1997)은 자원봉사활동이 보수가 없고 비자발적이라는 비생산적 측면보다 가치 창출을 통한 생산적 활동이라는 측면이 크게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기여가 가치와 동기부여라는 점을 강화시켜 주거나 증대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기부행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액을 최대화하는 전략과 현재의 기부행동을 지속시키고 유지시키는 전략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즉,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이타적 동기를 강조하고 당위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현재의 기부행동 빈도를 증가시키고 기부액수를 증액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외적인 요인 즉, 기부금의 사용내역, 프로그램 실행 및 서비스의 제공 등과 같은 기관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기부행동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건강과 소득은 생활만족도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소득증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중년기로 접어들면서 신체적 측면에서의 건강한 노화를 촉진하는 네트워크 자원이 결여되기 쉽고 보살핌이 주로 혈족 위주여서 보살핌을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 그 네트워크가 무너질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 재가보호서비스나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그 밖의 소득증대나 빈곤완화를 위한 사업들이 우리사회의 개인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건강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주민과 주민 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과 연관된 집단 간 신뢰가 호혜적이며 사회단체 참여가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역에 따라 사회적 신뢰수준이 낮고, 동기부여가 낮은 상태라면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바로 착수하는 것보다 지역 내의 사회적 신뢰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의미있게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실시된 횡단적 연구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사회단체 참여 및 신뢰에 대한 사회·심리적 요인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활만족도 상태를 추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생활만족도를 구성하는 다양한 변인들 간의 선행 영향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변인들의 범위를 확장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변인들을 확인하고 적용하여 생활만족도 개선방안을 보다 실증적으로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송진영은 KAIST에서 정보통신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서울기독교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군포시에서 노인재가센터를 운영 중이며,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서 겸임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복지실천부문이며, 현재 노인, 장애인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jysong4@daum.net)

참고문헌

- 강철희(2007). 기부 및 자원봉사와 신뢰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3), pp.5-32.
- 강현정(2009). 농촌 여성독거노인의 사회활동과 삶의 만족도.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pp.1-26.
- 김미령(2008).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 *한국노년학*, 28(1), pp.33-48.
- 김미혜, 정진경(2003). 노인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헌신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4(8), pp.221-243.
- 김상돈(2006). 사회제도신뢰의 인과구조에 대한 한·미 비교연구: 단체참여와 사회적 지원의 비교연구. *국제·지역연구*, 15(3), pp.125-159.
- 김영범, 이승훈(2008). 한국 노인의 사회활동과 주관적 안녕감: 서울 및 춘천 노인을 대상으로. *한국노년학*, 28(1), pp.1-18.
- 박병진(2007). 신뢰형성에 있어 사회참여와 제도의 역할. *한국사회학*, 41(3), pp. 65-105.
- 박세경, 강혜규, 이준영, 정진경, 한동우, 박소현(2009). 사회자본과 민간 복지자원 수준의 국가간 비교연구: 자원봉사와 기부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용순, 송진영, 황치정(2012). 전문직 은퇴자 및 은퇴예정 남성의 자원봉사 몰입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사회자원, 자원봉사활동의 매개효과 검증. *노인복지연구*, 56, pp.33-60.
- 송진영(2009). 중년 남성의 다중역할 몰입, 자기효능감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구조모형 분석.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서울기독교대학교, 서울.
- 양순미(2010).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사회참여활동 태도가 미치는 효과. *농촌사회*, 20(1), pp.233-263.
- 유홍준, 홍훈식(2009). 집단참여가 사적·공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 42(2), pp.55-77.
- 이근홍(2001). 노인의 사회참여와 자원봉사. *노인복지연구*, 12, pp.7-24.
- 이상연, 이재형(2007). 노년기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0, pp.787-797.

- 이선미(2005). 기업시민정신의 관점에서 본 임직원 자원봉사: 삼성과 SK 사례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4(1), pp.39-76.
- 이희창, 박희봉, 전지용(2008). 사회자본이 집단가치에 미치는 영향-한일양국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4), pp.51-76.
- 임우석(2009). 사회적 자본과 노인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도시행정학과, 서울시립대학교 서울.
- 제주발전연구원(2006).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보고서, 제주발전연구원.
- 조성남(2004). 에이지زم 시대: 고령화 사회의 미래와 도전, 이화학술총서,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 조완규(1993). 농민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농업교육과, 서울대학교 서울.
- 조윤주(2007). 생산적 활동이 여성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요구-조절-지지 모델의 적용. 박사학위논문, 아동가정학과, 연세대학교 서울.
- 최은숙(2012). 개인의 사회단체 참여 수준과 기부, 자원봉사의 관계-공적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서울시립대학교 서울.
- 최종덕(2007). 연구논문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의 방향. *시민교육연구*, 39(4), pp.135-161.
- 통계청(2011). 2011년 사회조사결과(나눔문화). 통계청.
- 홍성모(2010). 사회자본의 지역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정책학, 서울.
- 홍은진(2006). 자원봉사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5(1), pp.33-71.
- Andreoni, J. (1990). Impure Altruism and Donations to Public Goods - A theory of warm glow giving. *Economic Journal*, 100, pp.464-477.
- Ahrens, C. J., Ryff, C. D. (2006). *Multiple Roles and Well-being: Socio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Moderators*.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Inc.
- Baron, R.,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pp.1173-1182.

- Bekkers, R. (2003). Trust, Accreditation, and Philanthropy in the Netherland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2, pp.596-615.
- Brooks, A. C. (2005). Does Social Capital Make You Generous? *Social Science Quarterly*, 86, pp.1-15.
- Brown, E., Ferris, J. M. (2007). Social Capital and Philanthropy: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Individual Giving and Volunteering.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6(1), pp.85-99.
- Campbell, A., P. E. Converse,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pp.13-17.
-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pp. 94-121.
- Duncan, B. (1999). Modeling Charitable Contributions of Time and Mone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2, pp.213-242.
- Eisenberg, N. (1986). *Altruistic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Freeman, R. B. (1997). Working for Nothing : The Supply of Volunteer Labor. *Journal of Labor Economics*, 15(1), pp.140-166.
- Helliwell, J. F. (2007). Well-being and social capital: Does suicide pose a puzzle?. *Social Indicators Research*, 81(3), pp.455-496.
- Lemon, B.W., Bengtson, V. L., Peterson, J. A. (1972). An Exploration of the activity theory of aging: Activity type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in-movers to a retirement community. *Journal of gerontology*, 27(4), pp.511-523.
- Lewis, J. D., Weigert, A. (1985). Trust as social reality. *Social forces*, 63(4), pp.967-985.
- MacKinnon, D. P., Lockwood C. M., Hoffman J. M., West S. G., Sheets, V. (2002). A comparison of methods to test mediation and other intervening variable effects. *Psychological Methods*, 7, pp.83-104.
- Murphy, H. (2003). Exploring leisure and psychological health and wellbeing: Some problematic issues in the case of northern Ireland. *Leisure studies*, 22,

pp.37-50.

- Narayan, D., Cassidy, M. (2001). A dimensional approach to measuring social capita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ocial capital inventory. *Current Sociology*, 49(2), pp.59-102.
- OECD (2000). *Human and Social Capital Sustained Growth and Development*. Paris: OECD.
- Palmore, E. B. (1981). *Social patterns in normal aging: Findings from the duke longitudinal stud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Paxton, P. (1999). Is social capital declining in the US? A multiple indicator assess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1), pp.88-126.
- Putnam, R. (1993). *Making democracy work*.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we, J. W., Kahn, R. L. (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Random House.
- Sargeant, A., Lee, S. (2004). Donor Trust and Relationship Commitment in the UK Charity Sector: The Impact on Behavior.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3(2), pp.185-202.
- Schervish, P., Havens, J. (1997), Social participation and charitable giving: a multivariate analysis. *Voluntas*, 8, pp.235-60.
- Uslaner, E. M. (2002). *The moral foundation of tru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lson, J., Musick, M. (1997). Who cares? Toward an integrated theory of volunteer work.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 pp.694-713.
- Wilson, J., Musick, M. (2000). *Volunteering*. Annual Reviews at www.AnnualReviews.org. pp.1-20.
- Zucker, L. G. (1986). Production of trust: Institutional sources of economic structure, 1840~1920.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8, pp.53-111.

The Influence of Social Group Participation and Experience of Giving and Volunteering on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Trust

Song, Jin Yeong
(SungKyul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trust regarding a social group on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group participation, experience of giving and volunteering a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To achieve the goal, '2010 Seoul Welfare Panel Survey Data' was utilized for analysis. SPSS were applied in technical statistics, and th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our society's non-official · official social group participation demonstrated a considerably low action level (2) health and income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3) when social group participation is low, social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were positively mediated by trust. However, trust did not mediate the experience of giving and volunteering and life satisfaction. The confirmation that trust is an excreted that raises life satisfaction as a mediator between social group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is very significant. Based on these findings, I propose some political and practical plans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through social group participation and trust elevations.

Keywords: Life Satisfaction, Social Group Participation, Experience of Giving and Volunteering, Trust, Mediating Effect